

##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진수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상 이후의 친밀한 관계 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성장적 반추가 외상 이후의 친밀한 관계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317명(남성 150명, 여성 167명)에게 외상경험 체크리스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 외상 후 성장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성장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정적상관을 애착회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후 사회적 지지와 애착회피를 친밀한 관계경험이라는 변인으로 묶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장적 반추가 친밀한 관계경험과 외상 후 성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이후의 지지적 경험이 외상경험자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외상 사건을 이해하려는 메타인지과정을 활성화시켜 외상 후 성장을 돕는다는 외상 후 성장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외상 이후의 친밀한 관계경험은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고통의 감소 자체가 외상 후 성장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애착, 친밀한 관계, 성장적 반추, 외상 후 성장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0-330-B00303), 김진수(2011년 2월, 지도교수 서수균)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 051-510-2125, Fax : 051-581-1457, E-mail : sgseo@pusan.ac.kr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심각한 스트레스사건은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일생 동안 한 개인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이하 외상; trauma)를 겪게 될 확률은 78.79%에 이른다고 한다(이선미, 은헌정, 2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란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후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 및 과각성 상태, 회피 행동 등이 증가한 상태로, 이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진단되는 장애로 외상의 대표적인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지금까지 외상관련 연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이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그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혜원, 2006;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Burt & Katz, 1987; Calhoun & Tedeschi, 1990; Joseph, Williams, & Yule, 1993; Taylor, Kemeny, Aspinwall, Scheidern, Rodriguez, & Herbert, 1992).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문학작품과 철학 그리고 종교를 통하여 ‘인간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1995).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Tedeschi와 Calhoun(1995, 1996)은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을 외

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명명하고,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고, 그 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경험 후에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 혹은 성장은 기존에 개인이 지녀왔던 적응수준 및 심리적 기능 혹은 삶에 대한 인식수준을 넘어선 발달을 가정한다(Zoeller & Maercker, 2006). 또한 외상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처받기 보다는, 이에 저항하는 능력 및 개인의 기능/적응수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질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성장을 보고한 개인은 ‘착각’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Calhoun & Tedeschi, 2004; Tedeschi & Calhoun, 1995).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 및 개념은 다양한데, 변화의 차원과 내용에서는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성장의 세 가지 차원은 자기 및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대인관계 변화, 삶에 대한 철학적/영적 인식의 변화이다(Calhoun & Tedeschi, 2006). 결론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이후 자기 및 세상에 대한 관점, 대인관계, 삶에 대한 철학적/영적 인식에서 외상사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5, 1996)에 의해 외상 후 성장의 실체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외상 후 성장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

혜원, 2006; 신선영, 2009; 최승미, 2008; Calhoun & Tedeschi, 2004, 2006; Cheng, Wong, & Tsang, 2006; Park, Cohen, & Murch, 1996; Tennen & Affleck, 1999; Yalom & Lieberman, 1991).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 외상을 겪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 외상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의 정도, 종교성과 영성성 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보라, 신희천, 2010; 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정인명, 2009; Calhoun, Cann, Tedesch, & McMillan, 2000; Schultz, Tallman., & Altmaier, 2010; Yalom & Lieberman, 1991).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과 외상경험자의 대인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대처기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외상경험과 투쟁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김보라, 신희천, 2010; 신선영, 2009; Park & Folkman, 1997; Yalom & Lieberman, 1991), 외상 경험에서 유익한 점 찾기(Cheng et al., 2006; Talor, 1983), 외상 경험에 대한 성장적 반추(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정인명, 2009; Calhoun et al., 2000; Calhoun & Tedeschi, 2006) 등이 있다. 다양한 인지적 대처 방식 중 성장적 반추는 하위 개념 속에 외상에서의 이득발견 과정, 의미발견 과정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인지적 대처 방식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변인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외상경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Calhoun et al., 2000; Park & Folkman, 1997). 외

상 경험 초기에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외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는 침투적 반추를 경험하면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반추를 중단하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것은 외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내적 신념 및 목표, 활동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신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로운 신념과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다. 이처럼 침투적 반추와 대비되는 반추과정을 성장적 반추라고 부른다(박혜원, 2006; Calhoun & Tedeschi, 2006). 만약 외상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이 외상 후 성장의 필수적이라면, 외상 이후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변화에서의 개인차는 성장적 반추에서의 개인차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적 반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도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외상 이후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일컫는 말로써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en & Willis, 1985).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 이후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쉽게 극복했고, 스트레스 사건 이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환, 장문선, 1997; 신노라, 안창일, 2004; 오수성, 신현균, 2008; 유지현, 박기환, 2009). 외상사건도 넓은 의미에서 극단적인 스

트레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Cordova, Cunningham, Carlson과 Andrykowski(2001), Sears, Stanton과 Danoff-Burg(2003), Weiss (2004)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대안설명은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또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선행연구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불일치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인 정서적 고통과 과각성은 개인의 인지적 처리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상 이후의 부적 정서는 사람들의 사고-행동 경향성을 협소하고 지엽적으로 만든다(Lazarus, 1991). 따라서 외상 초기의 침투적 반추를 성장적 반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상 후의 정서적 고통과 과각성 상태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학대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대생존자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자신이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했으며,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재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ilver & Wortman, 1980).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완화시

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외상 이후의 사회적 지지경험은 외상 후의 정서적 고통과 과각성 상태를 완화시켜 성장적 반추과정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신선영(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장적 반추를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은 단순히 외상경험자가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에 따라 외상 후 주변 환경의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과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한 개인의 애착 패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Ber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광범위한 현상을 동일한 범칙으로 설명하는 매우 절약적인 접근으로, 각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방식과 외부세계 및 내부세계에 관한 탐색 능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ver & Hazan, 1988). 선행 연구들은 안정애착 집단이 다른 애착집단에 비해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전체 사회적 지지 척도 점수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지지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신노라, 안창일, 2004). 또한 안정 애착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을 보였다(고은정, 1996).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애착 패턴을 지닌 성인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있음을 시사한다(신노라, 안창일, 2004). 실제로 안정적인 애착패턴을 지닌 성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닌 성인들보다 더 흔쾌히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박지선, 2007).

아직까지 애착과 성장적 반추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둘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존재한다. 애착경험은 여러 가지 적응적 기능을 하는데, 애착관계는 안전한 피난처와 안정 기반을 제공하며,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의 발달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내적 세계를 탐색하는 능력 역시 촉진한다고 한다(Allen, 2003, 2010; Fonagy, 1991; Fonagy & Target, 1997, 2003). 성장적 반추 역시 외상사건을 이해하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내적인 정신적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애착관계는 성장적 반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한 개인의 애착패턴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상 이후의 주변 환경의 지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이 이를 회피한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둘 간의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애착패턴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친밀한 관계 경험이라는 큰 틀로 묶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친밀한 관계란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말하는데, 친밀감이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

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Descutner & Thelen, 1991).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지적 특성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한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서로의 지난 이야기, 가치, 강점, 단점, 개성, 희망, 두려움에 관한 깊은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정서적 특성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한다. 셋째, 행동적 특성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신체적 접근에 만족해한다(백보령, 1994).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특징은 일반적인 애착관계의 특징과 유사하며, 신체적 특징은 사회적 지지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애착패턴을 친밀한 관계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좀 더 가까우며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의 양과 그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첫째,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 애착패턴, 성장적 반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변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친밀한 관계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를 성장적 반추가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외상 이후의 지지적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성장적 반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647명 대상으로 2010년 8-9월 두 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외상경험이 없다고 보고하거나, 있다고 해도 주관적 고통을 낮게 보고한 경우(10점 만점에 3점 이하)와 무성의하게 응답한 330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317명(남: 150명, 평균 연령: 23.65( $SD=3.51$ ); 여: 167명, 평균 연령: 22.74( $SD=3.54$ ))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는 외상 경험자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 Calhoun과 Tedeschi(2004)가 정의한 외상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경험정도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외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

### 측정도구

#### 외상 체크리스트

Foa, Cashman, Jaycox와 Perry(1997)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 가운데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12문항을 기초로 장진이(2010)가 수정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는데, Foa 등(1997)의 체크리스트에는 실제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 목록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목록이 빠져있어,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개발한 외상 경험 목록 질문지에 있는 대인간 외상 경험 목록 2가지와 경제적 손실에 관한 문항 1가지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 등(2009)이 16문항으로 타당화한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개인이 자기보고 형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각 질문에 대해 1점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7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의 7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TGI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PTGI는 총 21문항으로 대인관계의 변화(7문항), 새로운 가능성 발견(5문항), 개인의 강점 발견(4문항),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3문항), 영적인 변화(2문항)와 같은 5가지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K-PTGI는 총 16문항으로 자기 지각의 변화(6문항), 대인 관계 깊이 증가(4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증가(2문항)와 같은 4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Cronbach's  $\alpha$ 는 Tedeschi와 Calhoun(1996)의 연구에서는 .90, 송승훈의 연구(2006)에서는 .92, 신선영(2009)의 연구에서는 .97,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반추 척도(Rumination Scale)

외상사건과 관련된 반복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Calhoun 등(2000)이 제작한 척도를 신선영(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alhoun 등(2000)이 외상 후에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다른 도구들로부터 외상 사건의 반추에 관한 것만 채택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14문항으로 되어 있고, 1 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의 7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반추를 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으로는 개인이 보고하는 침투적 사고(Sanavio, 1988), 외상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상사건을 떠올리기(Barrett & Scott, 1989), 외상사건을 헤쳐 나가는 과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좋은 점 찾기(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외상 경험 자체에서 유익한 점 찾기(Tennen & Affleck, 1998)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관해 심사숙고해보기(Yalom & Lieberman, 1991) 등을 측정하고 있다. 7문항을 외상 당시의 경험을 떠올려 체크하게 하고 동일한 7문항을 최근 2주 동안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체크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적 반추만을 측정하기 위해 정인명(2009)과 신선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침투적 반추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Calhou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외상당시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81, 최근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88, 신선영(2009)의 연구에서에서는 외상 당시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89, 최근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 .91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Blumenthal, Burg, Barefoot, Williams, Haney와 Zimet(1987)이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중요한 타인(4문항)으로부터 받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진숙(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외상 이

후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묻는 지시문을 사용하였다. 김희정과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의 *Cronbach's α*는 .93로,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왔다.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

Fraley, Waller와 Bernnan(1998)의 ECR-R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각 18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되어있고 각 차원의 점수는 18-90점 사이에 있으며 총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애착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차원은 애착불안으로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차원은 애착회피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현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였으며, 박지선(2007)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85, 회피가 .79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90, 애착회피가 .81로 나왔다.

**절차**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SPSS 18.0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Amos 18.0을 사용하여 친밀한 관계, 성장적 반추, 외상 후 성장간

의 인과적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위해 성장적 반추의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가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후,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3 단계에서는 매개변수로 선정된 성장적 반추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 한 후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 결 과

### 외상 유형

참가자들이 보고한 외상의 유형으로는 비의도적 외상(사건/사고, 파산, 질병/죽음)이 480건, 의도적 외상(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이 321건, 기타 6건이었다. 자세한 외상유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변인들 간의 관계

변인 간의 상관정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은 사회적 지지( $r=.31, p<.001$ ), 외상당시의 성장적 반추( $r=.52, p<.001$ ), 최근의 성장적 반추( $r=.52, p<.001$ )와는 정적상관을, 애착회피( $r=-.21, p<.001$ )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적을수록 외상 이후에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외상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성장

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성장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아주 강력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이 외상 후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애착불안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관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구조모형의 평가

#### 매개모형의 평가

상관분석 결과 애착불안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착불안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을 투입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친밀한 관계란 Descutner와 Thelen(1991)정의에 따라 한 개인의 애착패턴, 그 중에서도 애착회피 정도와, 한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의 양의 조합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애착회피 정도를 함께 고려한 구성 변인을 말한다. 친밀한 관계경험이 성장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 때 외상 당시의 성장적 반추와

표 1. 외상유형

유형	사건사고	파산	질병/죽음	신체폭력	성적폭력	정서폭력	기타
빈도	233	18	229	57	28	236	6
%	28.8	2.2	28.3	7	3.5	29.2	0.7



표 2. 전체 변인 간의 상관 (N=317)

	사회적 지지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성장반추 외상당시	성장반추 최근
애착불안	-.19***				
애착회피	-.39***	.32***			
성장적 반추_당시	.20**	-.01	-.18*		
성장적 반추_최근	.14*	-.04	-.05	.52***	
외상 후 성장	.31***	-.01	-.21***	.52***	.52***

\* $p < .05$ , \*\* $p < .01$ , \*\*\* $p < .001$ (양방검증)

최근의 성장적 반추를 묻어 성장적 반추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였다. Tedeschi와 Calhoun(1995)은 외상의 여파로 인한 성장과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 즉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과정이 외상 경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 당시의 성장적 반추와 최근의 성

장적 반추는 연속된 과정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척도내용상 차이가 없고, 본 연구에서도 높은 정적 상관( $r = .52$ )을 보였으므로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전매개모형(그림 1)은 친밀한 관계 경험, 성장적 반추에 의해 완전 매개 되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고, 부분매개모형(그림 2)은 친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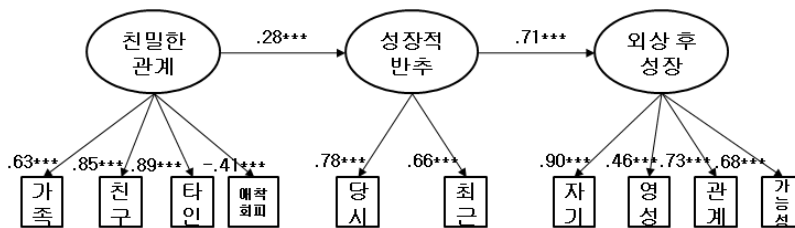


그림 1 완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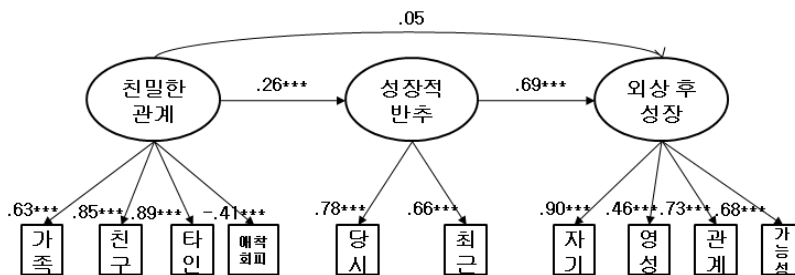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 모형

표 3. 최종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t	매개효과
친밀한 관계 → 성장적반추 → 외상 후 성장	-	.282(.195)	.282(.195)	3.499***	완전매개

\*\*\* $p < .001$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관계 경험이 성장적 반추에 의해 부분매개 되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적합도 수준을 고려했을 때 두 모형은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한다(홍세희, 2000). 하지만 부분매개모형의 직접경로(친밀한 관계 → 외상 후 성장)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이후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지지적인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인 성장적 반추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상 이후의 친밀한 관계경험은 그 자체로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성장적 반추를 활성화 시켜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매개효과 검증

외상 후 성장과 친밀한 관계 경험 간에 성장적 반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Amos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판단하는 임계치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 입력을 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sup>1)</sup>을 표4와 같이 알아보았다.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친밀한 관계 → 성장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t=3.499, p<.001$ )의 경로에서 매개변수인 성장적 반추는 매개변수로서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모형 검증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결과 결과(표 2 참조)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성장적

$$1) Z_{ab} = \frac{a \times b}{\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 s_a^2 \times s_b^2}}$$

Sobel 검증 중 Aroian 검증함. 여기서 a: 최초의 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계수, b: 매개변수에서 최종 변수로 가는 경로계수,  $s_a$ : 최초변수의 표준오차,  $s_b$ : 최후 변수의 표준오차, 검증 결과  $Z > 1.96$  혹은  $Z < -1.96$ 일 때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함

반추는 정적상관을, 애착회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관계를 회피하는 성향이 적을수록, 외상 이후에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외상경험에 대한 성장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의 필수적 과정이며 침투적 반추가 성장적 반추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외상 후 성장 모델(Tedeschi & Calhoun,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박혜원(2006), 신선영(2009), 정인명(2009), 최승미(2008) 등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회피는 외상 후 성장과 성장적 반추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지만 애착불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약간의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친밀한 관계경험 자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외상을 극복하고 이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결과 외상 이후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지지적인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개인은,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인 성장적 반추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친밀한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장적 반추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이후의 지지적 경험이 외상경험자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외상 사건을 이해하려는 메타인지 과정을 활성화시켜 외상 후 성장을 돕는다는 Tedeschi와 Calhoun(2006)의 외상 후 성장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외상 이

후의 친밀한 관계경험은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고통의 감소 자체가 외상 후 성장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정인명, 2009; Calhoun et al., 2000; Park & Folkman, 1997).

셋째, 상관분석 결과와 경로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외상 후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장적 반추로 보인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이 외상 후 성장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Calhoun, et al., 2000; Yalom & Lieberman, 1991). 따라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장적 반추를 돕는 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지 처리 과정은 그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크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낙관성(정인명, 2009), 자아탄력성(김보라, 신희천, 2010), 종교성 및 영성성(박혜원, 2006; Calhoun et al., 2000; Schultz et al., 2010) 등이 밝혀졌는데, 추후 연구에서 이들과 성장적 반추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외상 후 성장 경험을 설명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의 불일치가 성장적 반추라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 역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시간의 경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외상 후 시간의 경과를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변인이므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외상 경험 이후의 변화들을 추적조사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외상 후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 후 성장의 측정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외상 후 성장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분석을 실시하거나 좀 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는 균등하였지만 연령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이었고, 학력 면에서도 대학교 재학 이상인 참가자들이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대, 학력을 가진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외상 후 성장의 핵심 과정인 성장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는 외상 이후의 친밀한 관계경험만이 성장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지, 성장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던 성격요인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외상을 보고했

던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은 그 자체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지만, 동시에 개인과 사회적 관계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 척도가 긍정적인 변화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긍정편향의 결과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이 대부분 4년제 대학 재학생이었으므로 외상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외상 이후에 생기는 변화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개인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도울 때,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외상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과 삶의 의미를 깨달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 외상 사건을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외상 경험자들이 외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정서를 표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더라도, 여기에 만족하기 보다는 외상 사건의 의미나 이점을 찾는 인지적 작업을 병행해서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적응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외상이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지만(표1 참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인관계 속으로 들

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상 경험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로서 외상 경험자들에게 친밀한 관계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상담실 외에서도 이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은정 (1996). 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119.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환, 장문선 (1997). 분노표현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심장혈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97-207.
- 김희정, 권정혜, 김중남, 이란, 이건설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박지선 (2007).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원 (2006). 외상 후 증상, 영성성 및 성장적 속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보령 (1994).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애인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4, 949-968.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유지현, 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우울, 불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33-852.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1.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정인명 (2009).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 후

-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Allen, J. G. (2003). Mentaliz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7, 87-108.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법,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0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DSM-IV. 서울 하나의학사.
- Barrett, W., & Scott, B. (1989). Development of the grief experience questionnaire.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19, 201-215
- Ber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lumenthal, J. A, Burg, M. M., Barefoot, J., Williams, R. B., Haney, T., & Zimet, T. (1987).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49, 331-340.
- Burt, M. R., & Katz, B. L. (1987). Dimensions of recovery from rape: Focus on growth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57-81.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0). Positive aspects of critical life problem: Recollection of grief. *Omega*, 20(4), 265-272.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3-23).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en, J. C.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521-527.
- Carver, S., Scheier, F., & Weintraub,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heng, C., Wong, W., & Tsang, W. (2006). Perception of Benefits and Costs During SARS Outbreak: An 18-month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870-879.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rdova, M. J., Cunningham, L. C., Carlson, C. R., & Andrykowski, M. A. (2001).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A controlled comparison study. *Health Psychology*, 20, 176-185.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 of 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3,

- 218-225.
- Foa,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455-451.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79-700
- Fonagy, P., & Target, M. (2003). Evolution of the interpersonal interpretive function: Clues for effective preventive intervention in early childhood(Eds.), *Trauma and human bonds* (pp.99-113).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387-404.
-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3). Change in outlook following disaster: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271-279.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115-144.
- Park, C. L., Cohen, I. H., & Murch, R.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Sanavio, E. (1998).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 Padua Inventor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6, 169-177.
- Schultz, J. M., Tallman, B. A., & Altmaier, E. M. (2010). Pathways to posttraumatic growth\_The contributions of forgiveness and importanc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 104-114.
- Sears, S. R., Stanton, A. L., & Danoff-Burg, S. (2003). The yellow brick road and the emerald city: Benefit finding, positive reappraisal coping, and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2(5), 487-497.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5, 473-501.
-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Carver and 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aylor, S. E., Kemeny, M. E., Aspinwall, L. G., Scheiderm, S.G., Rodriguez, R., & Herbert, M. (1992). Optimism,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high-risk sexual behavior among

- men at risk fo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D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60-463.
- Tedeschi, R. G.,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th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nnen, H., & Affleck, G. (1998). Personal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face of adversity. In R. G. Tedeschi, C. L. Park, & L. G. Calhoun (Eds.),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pp.65-98).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Tennen, H., & Affleck, G. (1999). Finding benefits in adversity. In C. R. Snyder(Eds.),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279-30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eiss, T. (2004). Correlat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married breast cancer surviv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733-746.
- Yalom, I., & Lieberman, M. A. (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 334-345.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26-653.

1 차원고접수 : 2011. 6. 20.

수정원고접수 : 2011. 8. 17.

최종게재결정 : 2011. 9. 08.



##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Intentional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Jin-Soo Kim**

**Su-Gyu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and intentional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whether the intentional rumin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se relationship and posttraumatic growth. For this purpose, sample of 317 university students (150men and 167 women) in Busan. were asked to complete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 Scale, Rumination Scale, and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imple correlation analysis, posttraumatic growth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intentional rumination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ttachment-avoidance. After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avoidance combined to form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tructural modeling wer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intentional rumination had full mediation effect between the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and the posttraumatic growth. Finally,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s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upport, attachment, close relationship, intentional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